

추석상도 ‘1인 시대’… 편의점 4사, 소용량 명절식 총출동

소용량·단품·간식 상품군 강화
CU, 명절 도시락 매출 3년 연속 ↑
세븐일레븐, 자체 냉장밥 기술 적용

편의점 업계가 추석을 앞두고 1인 가구를 겨냥한 명절 간편식 판매에 나섰다. 명절을 혼자 보내거나 간소하게 보내는 소비자가 늘면서 정찬 도시락뿐 아니라 전·잡채 등 단품 요리와 김밥, 주먹밥, 디저트까지 상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8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 4사는 추석을 앞두고 명절 음식을 활용한 간편식 신제품을 잇달아 출시한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명절 음식을 직접 준비하는 대신 필요한 만큼 구매하려는 수요를 겨냥한 것이다.

실제 명절 연휴 기간 편의점 도시락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다. CU의 명절 연휴 도시락 매출은 전년 대비 2023년 18.5%,



명절 연휴에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명절 음식을 찾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1~2인 가구와 혼자 명절을 보내는 이른바 ‘혼명족’을 중심으로 간단히 명절 분위기를 내고자 하는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명절 신상품을 든 모델의 모습. /이마트24

2024년 20.8%, 2025년 12.2% 증가해 최근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관련 매출의 60% 이상은 원룸촌과 오피스텔 등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 발생했다.

SK바이오팜, 글로벌 R&D 전문가 영입

뉴로사이언스 본부장에 김태호 박사
CNS 연구 조직, CEO 직속으로 개편

SK바이오팜이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글로벌 임상개발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전문가 체계를 구축하며 전주기(End-to-end) R&D 강화에 나섰다. 신경과학, 항암 등 핵심 영역에 전문가를 배치함은 물론 미국 법인 SK라이프사이언스랩스를 중심으로 의학 전문 인력을 확충했다.

SK바이오팜은 최근 노바티스에서 12년간 신경과학 R&D 및 포트폴리오 전략을 주도한 김태호 박사(사진)를 뉴로사이언스(Neuroscience) 본부장으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중추신경계(CNS) 연구 기능을 최고경영책임자(CEO) 직속 조직인 ‘뉴로사이언스 본부’로 개편하면서다.

항암 분야에서는 ‘방사성 의약품’과 표적 단백질 분해제’를 양대 축으로 내세웠다.



우선 방사성 의약품 센터는 신용제 센터장이 내부 연구 역량을 올리고 있다. 신약후보물질, 자체 캘레이더 플랫폼 등으로 자체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또 동위원소 확보 등 공급망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표적 단백질 분해제 센터에서는 미국 법인 SK라이프사이언스랩스의 최고과학 책임자(CSO) 라이언 크루거 박사를 중심으로 차세대 항암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라이언 크루거 박사는 암 생물학 및 후성유전학 전문가다.

특히 SK바이오팜은 실제 의료 현장과 처방 경험을 반영해 신약개발 전략을 고도화한다.

소아신경과·뇌전증 전문의인 수니타미스와 최고 의학 책임자(CMO)를 필두로 주요 개발 및 의학 기능 전문인력의 약

20%가 의학박사로 구성됐다. 지난 7월에는 글로벌 비카마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퀘브, 애브비 등에서 18년 이상 경력을 쌓은 항암 임상 전문 김수영 의사과학자가 합류했다.

SK바이오팜은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아시아의 우수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해 글로벌 임상 및 상업화로 연결하는 ‘이스트-웨스트 브릿지’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글로벌 신약은 좋은 물질을 발굴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초기부터 실제 환자에게 어떤 치료적 가치를 제공하고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환자 진료와 처방 경험을 갖춘 의학 박사와 연구 전문가가 긴밀하게 소통해 연구에서 임상개발, 나아가 상업화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R&D 체계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GC녹십자, AI로 백신 품질 관리

AI-GMP 과제 주관연구기관 선정

GC녹십자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미래 팬데믹 대응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GC녹십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주관하는 ‘AI 활용 백신 제조변동성 제어 및 지능형 품질관리 시스템 개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4년 6개월간 추진되며, 국립목포대, 대구 가톨릭대, 전남바이오진흥원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참여 기관들은 화순바이오특화단지 및 GC녹십자 화순공장의 mRNA-LNP GMP 생산 인프라를 거점으로 스마트 제조-품질관리(AI-GMP)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기술을 융합한다는 방침이다. mRNA-LNP 백신의 원료의약품(DS)부터 완제의약품(DP)에 이르는 제조 전 공정의 변동성을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품질을 최적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 연속 공정 분석 기술을 고도화해 배치 간 품질 차이를 최소화하고 실시간 품질 예측 및 이상 탐지 시스템을 갖추고 품질 백신의 안정적인 양산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주기적인 팬데믹 위기 속에서 신속하고 일관된 품질의 백신 공급망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만큼, mRNA-LNP 전주기 독자 기술과 전용 GMP 시설을 모두 갖춘 GC녹십자의 디지털 전환은 백신 주권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청하 기자

피부온도 9℃ 낮춰주는 바세린 바디워시 출시

러닝과 웨이트 등 운동 후 밀려오는 피부 열감, 땀 냄새, 등드름 고민을 사워한번으로 씻어내는 올인원 바디워시가 등장했다.

애경산업의 패밀리 토탈 바디케어 브랜드 바세린에서 ‘쿨링 앤 데오케어 바디워시’ (사진)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즉각적인 냉각 효과를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멘톨 성분을 함유해 사용 즉시 피부 온도를 사용 전 대비 9℃나 떨어뜨리는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확보했다. 운동 직후 달아오른 피부 열감을 신속하게 식혀 사워 후 극강의 상쾌함을 전달한다. /이청하 기자



GS25는 도시락과 간편식, 김밥, 주먹밥 등 여러 상품군에 명절 메뉴를 적용했다. ‘이달의 도시락 한가위편’은 흑미밥과 전주비빔밥, 유채나물밥 등 세 종류의 밥에 잡채, 떡갈비, 모듬전과 송편 등을 담았다. 전과 잡채로 구성된 ‘추석 잡채&전’도 출시한다. 이와 함께 불고기를 넣은 ‘추석 불고기추장비빔 김밥’과 곤드레 나물밥에 고기를 더한 ‘추석 맥적구이 주먹밥’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CU는 도시락과 단품 요리, 디저트로 상품군을 구성했다. ‘풍성한가위 정찬 도시락’에는 간장불고기와 잡채, 모듬전, 나물 3종 등을 담았다. 전과 잡채로 구성된 단품 상품 ‘풍성한가위 잡채 모듬전’도 판매한다. 명절 간식인 송편도 소포장 상품으로 내놓는다. ‘참깨송편’은 1인 가구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으로 구성하고 포크를 함께 제공한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4월 개발한 냉장밥 수분 보존 및 노화 방지 기술인 ‘라이스 프로젝트’를 이번 명절 간편식에 적용했

다. 전자레인지로 가열하지 않아도 밥의 수분과 식감을 유지하는 기술로, 명절 간편식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제품으로 남도식 떡갈비를 넣은 ‘복가득담은떡갈비김밥’과 산적 패티를 사용한 ‘복가득담은고기산적무스비’를 출시한다. 소불고기와 모듬전, 훈제오리구이 등 11가지 반찬으로 구성된 ‘복가득담은한상 도시락’도 선보인다.

이마트24는 정찬 도시락 ‘한가위보름달만찬’을 출시한다. 흑미밥과 돼지불고기, 전 3종, 잡채, 삼색나물 등으로 구성했으며 후식으로 미니 찹쌀약과를 넣었다. 해당 상품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사전예약과 제휴 결제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주요 편의점들이 명절 정찬 중심이던 간편식 구성을 단품 요리와 간식 등으로 확대하면서 1인 가구의 명절 식사 수요를 겨냥한 상품 경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셀트리온, 日 KBIC와 스케일업 추진

한일 최초 민관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셀트리온이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 ‘고베 바이오메디컬 혁신 클러스터(KBIC)’와 손잡고 한일 최초의 민관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에 나선다.

셀트리온은 8일 도쿄 LINK-J 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2026 KBIC-셀트리온 글로벌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초연구 역량과 셀트리온이 구축해 온 글로벌 상업화 노하우를 결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차세대 핵심 파이프라인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둔다. 셀트리온의 기술과 연계 가능한 항체, 펩타이드, 저분자화합물, 항노화 분야에서 혁신 스타트업과의 협력할 계획이다.

올해 12월까지 모집해 오는 2027년 3월 2개 기업을 최종 선발한다. 2027년 한 해 동안 연구개발부터 허가·생산·상업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셀트리온의 맞춤형 자문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고베 바이오메디컬 혁신 클러스터는 운영기관인 고베의료산업도시 추진기구를 통해 투자 유치 전략을 고도화한다. 벤처캐피탈(VC) 등과 적극 소통해 유망 기술이 연구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의 성과를 내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과 일본의 강점을 바탕으로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생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슈가논 10주년… 차세대 당뇨·비만 공략

동아에스티, 5개 도시서 학술 행사

동아에스티가 당뇨, 비만 등 차세대 내분비 파이프라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국산 당뇨병 치료제 ‘슈가논’ 출시 10주년을 맞아 전국 5개 주요 도시에서 학술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 7일 부산을 시작으로 10일 대구, 14일 광주, 17일 대전을 거쳐 오는 10월 19일 서울에서 막을 내린다.

동아에스티는 전국 의료진과 함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슈가논(성분명: 에보글립틴)의 강력한 혈당 개선 효과와 장기 투여 안전성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슈가논은 지난 2015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제26호 국산 신약이다. 기존 다른 DPP-4 억제제로 혈당 조절이 불충분했던 환자에서 슈가논 전환 투여 시 나타난 당화혈색소 추가 감소 및 공복·식후 혈당 개선 효과, 65세 이상 고령 환자 대상 24주 이상 장기 투여 시 입증된

슈가논의 유의미한 당화혈색소 감소 효과와 안전성 등에 대한 연구성과를 다룬다.

이와 함께 동아에스티의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DA-1726’ 등에 대한 발표도 이어진다.

아울러 동아에스티는 슈가논 제품군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슈가논과 메트포민 복합제 ‘슈가메트정’, 슈가논과 다파글리플로진 복합제 ‘슈가다파정’, 슈가논·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민 복합제 ‘슈가트리사방정’ 등을 선보여 왔다.

오는 12월 15일에는 슈가논과 엠파글리플로진 복합제 ‘슈가엠파정’이, 2027년 4월에는 슈가논·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3제 복합제 ‘슈가노바정’이 출시될 예정이다.

동아에스티 당뇨파트 박종국GPM은 “축적된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슈가논의 가치를 한층 높이는 동시에, 당뇨와 비만을 아우르는 혁신 치료 옵션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